

	제26기 제6회 장곡중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록		
위원장		간사	학교장
○ 일시 : 2024. 11. 7. (목) 15:30 ○ 장소 : 다울꿈터			
○ 회순 1. 개회 2. 학교장 인사 3. 개회 선언 4. 안건 심의 5. 폐회			
○ 의사일정 ○ 임시회 부의된 안건 심의 1 2025학년도 신입생 교복 계약 내용 변경(안) 2 2024학년도 초빙교사제 운영 결과 보고 3 2025.3.1.자 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신청 여부 심의(안)			
간 사	[개회선포 및 국민의례] 지금부터 <u>제6회 장곡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u> 를 개회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학교장 이경숙입니다. (교장선생님 인사말씀)		
간 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원 10명중 10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u>2024학년도 제6회 장곡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u> 를 개회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이번에 발의된 안건은 심의안건 3건입니다. 발의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u>제1안 2025학년도 신입생 교복 계약 내용 변경(안)</u> 을 상정합니다. <u>담당선생님께서</u> 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자치부	안녕하세요. 인권자치부 000입니다.		
담당교사	2025학년도 신입생 교복 계약 내용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교복 입찰기초금액은 44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복업체에서 투찰 실수로 앞 자리를 잘못 클릭하여 43만원에 하시려던걸 33만원으로 투찰하셔서 1벌당 33만9천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여 33만9천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1인당 교복 지원금은 40만원으로 교복계약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동복생활복 하의와 하복 생활복 하의를 1벌씩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2025학년도 교복 선정 업체는 어디입니까?		
담당교사	우리학교 대각선 길건너에 있는 센텐 학생복입니다.		

위원	업체에서 원래대로 투찰하였으면 학부모 자비 부담금이 3만원정도 발생할 수도 있었겠네요.
위원	내년 신입생들은 동복/하복 생활복 바지를 1벌씩 더 받아가실텐데 그다음해에 추가 구입이 안되면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교복질이 떨어져서 2개를 주는 줄 아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 주위 학부모님께 내용을 잘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교사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내년에는 바우처로 지급된다고도 하니 그렇게 되면 필요한 품목만 바우처로 구입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제2안 2024학년도 초빙교사제 운영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교무기획부장님 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기획부장	네. 교무기획부장입니다. 초빙교사제 실시 학교는 초빙교사 운영 상황 보고서를 연1회 학교운영위원회와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우리 학교에는 지금 초빙 교사가 네분이 계시며 000선생님은 올해 초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셔서 올해 교육 활동은 없으십니다. 000 부장님과 000 부장님, 000 부장님 세분이 올해 초빙교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주요 활동 실적은 심의 안건 유인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분은 교육과정부장과, 미래혁신부장,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불철주야 각각 맡으신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학교 전반적인 일들에 출선수범으로 임해주시고 계시고 생활지도는 물론이거니와 교사 간 화합을 이루는 부분들이나 타 부분에서도 선도적이고 리더가 되는 것에 모범이 되어주며 많이 노력하고 힘쓰고 계십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활동 실적을 읽어봐 주시고,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지금 초빙교사가 4분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기간 연장을 하셔서 계속 장곡중학교에 근무하시나요?
교무기획부장	초빙교원 실적에 초빙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000 선생님은 22.3.1~26.2.28까지이며 그 외 세분은 23.3.1~27.2.28까지이며 초빙기간동안에는 변동이 있을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제3안 2025.3.1.자 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신청 여부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교무기획부장님 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기획부장 2025.3.1.자 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신청 여부 심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000교장선생님께서 공모기간 만료가 되어 2025년에 교장 공모제 운영여부에 대해 학교 구성원(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해야 되었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일정들이 촉박해 운영위원회 회의 날짜를 잡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신청 여부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은 이알리미를 통해서 했고 교직원 의견 수렴은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심의안건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교에 속하고 그래서 공모 유형은 내부형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형 중에서도 교장 자격 요구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장 자격 미소지자도 응모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구수 (설문대상)					478		교직원수(교원, 일반직)					59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교직원 의견수렴 결과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일시
회신(162)				미회신	계	찬성	반대	무효	미회신	계			
찬반여부 응답 145	찬성		반대								기권		
	119 (82.1%)		26 (17.9%)	17	316	478	36		23	0	0	59	11월 7일 (15:30)
찬성자 119	자격 소지	73 (61.34%)	.	.	.	100%	자격 소지	2 (5.56%)	.	.	.	100%	
	자격 미소지	46 (38.66%)					자격 미소지	34 (94.44%)					
공모유형				내부형				(심의후 결정)					
공모교장의 요건				○ 장곡중학교 학교혁신 철학을 이해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 하고 소통하며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관을 가진 분 ○ 학생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 학생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다양화, 평화로운 학급, 바른 인성에 대한 교육철학으로 회복적생활교육을 실천한 혁신학교 경험이 있는 분									

이알리미를 활용해서 10월 24일에서 10월 30일까지 학부모님들의 응답을 받았고, 교직원들은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현장투표를 했었습니다.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를 보시면 장곡중학교 학생 수 전체는 508명인데 형제 자매는 1가구로 설정하여 47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대표자만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람은 232명, 회신은 162명이 하셨습니다. 회신율이 아무래도 높아야 좀 더 신뢰성이 있어서 가정통신문 두 차례, 학교 홈페이지 두 차례 그리고 문자로도 한차례 그래서 총 5번 안내를 하였고 회신자 162명 중에서도 찬반을 표시해 주신 분은 145명, 기권은 17명입니다. 찬반투표해주신 145명 중에 119명(82.1%)이 찬성, 26명(17.9%)이 반대하였습니다. 찬성을 해주신 119명 중에서 교장 자격 소지자만 응모 가능은 73명(61.3%), 자격 미소지자도 응모 가능은 46명(38.7%)이 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교장의 요건에 대한 의견을 이알리미를 통해 서술하도록 하였고 결과는 그대로 캡처하여 안전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가 되실 지 모르니까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안전 자료 뒷페이지에는 교직원 의견 수렴 결과가 있습니다.

교직원 의견 수렴은 총 59명으로 공모 교장 찬성 36명(61.02%), 반대 23명이었습니다. 공모교장 찬성 중 자격미소지자도 응모 가능에 34명(94.44%), 자격소지자만 응모는 2명(5.56%)으로 학부모 의견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모 교장의 요건에 대해 교직원 중에서는 ‘장곡중과 교육 가치관이 부합하시는 분’ 한 건만 서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 의견수렴의 경우 일단 회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회신을 한 경우에 약 80% 이상이 학부모들은 찬성을 하였고 교직원들은 60% 정도 찬성을 하였습니다. 교장 자격 소지 여부를 볼 때 학부모님들은 자격 소지자만 응모(61.3%)하게 하자는 게 높았고 교직원은 자격 미소지자도 가능하게 하자고 하는 게 거의 94.4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를 심의하시고 최종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자격 미소지자도 가능하게 할 것이냐 꼭 소지자만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회신률은 어떻게 돼요?

교무기획부장	<p>교육청에서 내려온 제시한 표로 작성하면 미회신까지로 다 해서 100%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너무 수치가 낮게 나오게 되어 학교에서 응답한 사람 중에 찬성률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투표율은 낮을 수 있는데 학운위 협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는 교장 자격 소지자만 응모 가능은 73명(61.3%), 자격 미소지자도 응모 가능은 46명(38.7%), 교직원의 경우는 반대로 자격미소지자도 응모 가능에 34명(94.44%), 자격소지자만 응모는 2명(5.56%)으로 학부모 의견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p>
위원장	<p>오늘 운영위원님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줌으로 공모제 교장에 대한 교육도 받았는데 서류 준비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내일이 서류 마감이라 운영위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운영위원을 쫓 하면서 장곡중학교가 12년 차 혁신학교로 해서 000 교장선생님, 000 교장선생님 지금 계시는 000 교장선생님 이 세분을 겪어보고 지금 학교에 변화도 많이 생겼잖아요.</p> <p>자격 미소지자 공모제 교장으로 오셔서 학교의 관리를 잘해주시는 교장도 있는 반면에 교장의 자격 있는 공모제 교장이나 일반적인 교장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학교에 배정이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A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 할 때 체육과 출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오셔서 만 2년 정도 열정없이 계시다가 정년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공모교장으로, 특히 교장 자격 미소지한 교장 선생님은 그나마 학교에 대한 열정과 애착심이나 학생들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가 학교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변화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0 교장선생님 계실 때나 000 교장 선생님도 장곡중학교에 근무하시는 동안 고생은 했지만 열정이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힘써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우리 마을에 발전을 위해서라도 힘껏 노력하였습니다. 학교가 발전이 되면 학생에게도 좋고 우리 마을도 좋아지고 하니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하니 교장 자격이 없더라도 학교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학교를 이끌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p> <p>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들은 어떠실 지 한번 여쭙볼게요.</p>
위원	<p>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교장자격소지자와 미소지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셨으면 저렇게 투표를 했을까, 잘 모르시기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위원	<p>저도 주변에서 다른 학교 학부모에서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일반 교장의 경우 거의 퇴직을 얼마 안 남겨두고 오셔서 학교에서 1~2년 머물다가 열정 없이 계시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런 시스템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교장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면 학교에 변화가 많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 소지에 상관없이 학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p>
위원장	<p>맞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마음가짐에 따라 아파트가 달라지는 것처럼 교장 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는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000교장선생님 내년 2월에 퇴임을 하시지만 향후에 자격증이 없는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장곡중학교 12년 역사의 바톤을 넘길 때 기분 좋게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교장 선생님도 마음 편하게 퇴임하실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과 해왔던 장곡중학교의 전통은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p> <p>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니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 실시)</p>
교무기획부장	<p>이제 이후에는 이 자리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우리가 신청서를 내게 되고 지정되면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p>

니다. 공고문을 보시고 지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을 심사하기 위해 학교에서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경영계획설명회도 실시하여야 하고 3배수를 추천받아 학교에서 심사한 것과 교육청 심사가 1대 1로 합산되어 최종 순위가 나오게 되며 교육감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위원 중요한 거는 남아 있는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교장 선생님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게 공모 교장인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교장을 뽑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우리 장곡중학교의 매력이고 전통인 것 같은데 잘 흘러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곡중학교 공모교장제(내부형) 추진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운위원 10명 투표하였는데, 교장공모제 신청 찬성-교장자격소지자 및 미소지자도 응모 가능 10표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운영위원님들 모두 참여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서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늘은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6회 장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